

‘박스권’ 갇힌 국내증시 속... 빠르게 우상향 하는 엔터株

KRX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지수 지난 8월 최저치比 약 10.70% 올라 YG·JYP·하이브, 두 자릿수 오름세 트럼프 관세정책서 ‘무풍지대’ 주요 아티스트 복귀에 실적 기대감

진한 국내 증시를 떠나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주식 이민’이 확산되는 와중에도 국내 엔터테인먼트 종목들이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며 이목을 끌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주 초부터 반등을 시작해 2500선을 탈환했지만 지난 9월 4일 이후로 2600선을 뚫지 못하는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 반면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S&P 500 지수는 지난주 약 1.3% 상승하며 올해 상승률만 24%를 넘어섰고,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4만4296.51)를 경신했다. 이에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으로 빠르게 투자자금을 옮기는 모양새다.



‘아파트’로 영미권 차트를 강타한 미국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가 22일 오후 일본 교세라 돔 오사카에서 열린 ‘2024 마마 어워즈(MAMA AWARDS)’에서 ‘글로벌 센세이션’을 받았다. /CJ ENM

그럼에도 엔터테인먼트 섹터는 지지 부진한 국내 증시 상황과 다르게 지난 8월 이후 저점을 찍은 뒤 빠르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포털·엔터테인먼트·게임 종목 등을 구성 종목으로 채택한 ‘KRX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지수’는

지난 8월 5일 1539.68로 52주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이번 달 22일에는 1704.45를 기록하며 약 10.70% 상승했다.

같은 기간 와이즈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3만3500원에서 4만8900원으로 약 45.97%, JYP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5만900원에서 6만6100원으로 약

29.86%를 기록했으며, 하이브의 주가는 17만100원에서 21만4000원으로 약 25.81%로 모두 두 자릿수의 큰 오름세를 보였다. 주가 상승으로 국내 엔터 4사(JYP엔터테인먼트·와이즈엔터테인먼트·에스엠·하이브)의 시가총액도 지난 22일 기준 총 14조500억원으로 지난 달 말(11조8320억원)보다 18.7%(2조2180억원) 증가했다.

이런 엔터테인먼트 섹터의 상승세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호재가 연달아 일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엔터주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에 도운 호재로는 ‘국내의 관심’과 ‘해외의 무관심’이 공존한다. 한국거래소는 밸류업 지수 종목으로 JYP엔터테인먼트와 에스엠을 선정했고 이는 개인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들의 매수세도 이끌었다. 아울러 엔터주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강화 정책에서도 ‘무풍지대’에 있다는 평을 받는다. 트럼프 관세 정책에서 ‘서비스업’은 규제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용찬 iM중

권 애널리스트는 “대형 수출주가 부진한 상황에서 미국발 관세 부과와 연관성이 낮은 엔터·미디어, 게임 등 무형 상품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주요 아티스트 복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저가 매수세와 맞물린 점도 엔터주에 호재로 작용했다.

증권가는 내년에는 BTS, 블랙핑크 등 인기 그룹의 완전체 컴백과 저연차 그룹의 IP(지적재산) 수익화 시점에 따라 음반 판매량 성장 등을 배경삼아 엔터주 주가가 추가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엔터 업종 특성인 ‘인적 리스크’는 늘 예상하기 힘든 변수다. 대표적으로 하이브는 아직 민회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남아 있다. 이남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하이브에 대해 “어도어 이슈, 게임 퍼블리싱 사업, 위버스 구독 모델 등이 내재된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고배당주·AI 실적개선 등에 기대감 ‘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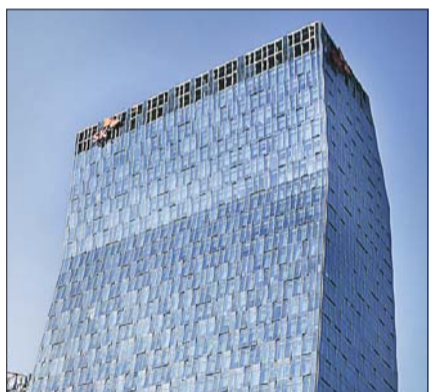
metro 관심종목 SK텔레콤

배당 수익률 6.25%... 外人 관심도 늘어 2026년까지 ROE 10% 이상 달성 AI 매출 비중 35%로 높이는 등 목표

증권업계에서는 높은 배당 수익률에다가 인공지능(AI) 사업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SK텔레콤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2일 SK텔레콤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900원(1.60%) 오른 5만7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는 고배당주인 SK텔레콤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 SK텔레콤의 배당 수익률은 6.25%에 달한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늘고 있다. 21일 기준 SK텔레콤의 외국인 지분율은 42.39%를 기록했다. 통상 연말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배당을 노리고 통신주 같은 고배당 종목들 위주로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SK텔레콤 본사 T타워. /SKT

답는데 다음 달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통신주가 신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감까지 더해져 점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지난달 24일 공격적인 밸류업 계획을 발표했다. 2026년까지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을 달성하고 연결 기준 조정 당기순이익 50% 이상을 주주환원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SK텔레콤은 오는 2030년까지 총 매출 30조원을 달성하고 이를 위해 AI 매출 비중을 35%로 높이는 ‘AI 비전 2030’도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의 내년도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5G 보급률이 높아져 무선사업 매출 성장은 더디겠지만 휴대폰교체수요가 현저히 줄어 마케팅비용이 절감된 데다 설비투자(CAPEX) 감소로 감가상각비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익 성장과 주주환원 확대로 주가의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관계로 배당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는 더없이 매력적인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의 AI 사업 성장 가능성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KB증권은 SK텔레콤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며 목표주가를 기존 7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SK텔레콤은 AI 데이터센터, GPUaaS, 옛지 AI로 구성된 AI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전략 구상인 ‘AI 인프라 슈퍼 하이웨이’ 구축 의지를 확인한 데 이어, 데이터센터 사업 본격화를 위해 SK브로드밴드의 잔여 지분을 인수했다”며 “현재 구축 중인 데이터센터가 가동하면서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금감원, 가상자산 금융사기 피해예방 박차

IOSCO 주관 ‘세계투자자주간 캠페인’

금융감독원이 ‘세계투자자주간’을 맞아 가상자산 관련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주제로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주관으로 시행되는 ‘세계투자자주간 캠페인’을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다. 24일 밝혔다.

세계투자자주간 기간에는 각 회원국이 매년 한 주를 정해 투자자보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118개국에서 진행됐으며 한국은 2020년부터 참여했다.

금감원은 이번 세계투자자주간 캠페인 주제로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선정했다. 총 7개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은 세계투자자주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금감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피해예방’ 유튜브 영상을 제공한다.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가상자산조사국 직원과 학계 전문가가 출연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피해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방영한다.

또한 금융사기 취약성 자가진단과 가상자산 키즈 등을 통해 투자자가 자신의 금융사기 취약성을 자가진단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상자산 기초상식을 가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허정윤 기자

미래에셋증권,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확대

퇴직연금서 개인연금 고객에도 제공

미래에셋증권이 기존에 퇴직연금 고객에게만 제공되던 ‘맞춤형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개인연금까지 확대한다.

미래에셋증권은 ‘개인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의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2022년 9월 첫 출시된 이후, 올해 10월말 기준 가입계좌 2만좌 이상, 가입자산 1조7000억원 규모의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로 성장해왔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40~50대 고객들의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가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11월 중순 기준 약 70% (가입계좌 수 약 1만 6000좌, 가입금액 약 1조2400억원)를 차지하며, 연금에 지속적으로 신경쓰기 힘든 직

장인과, 은퇴를 앞둔 세대들의 가입 비중이 높았다.

이번에 미래에셋증권이 출시한 개인연금 로보어드바이저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와 동일하게 ‘내 계좌 맞춤형 서비스’가 도입됐다. 고객의 투자 성향, 가입 시점, 현재의 자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투자솔루션을 제안하고, 개별 투자 상품에 부과된 보수 및 수수료 외에 로보어드바이저 이용에 따른 별도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미래에셋 증권 관계자는 “개인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가입과 이용도 간편하다”며 “고객은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앱(M-STOCK)을 통해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복잡한 절차 없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소개했다. /허정윤 기자

테라뷰, 기술성 평가서 ‘A, A’ 등급 획득

코스닥 상장 추진 본격화

테라헤르츠 전문기업 테라뷰는 기술성 평가에서 긍정적인 등급을 획득했으며, 본격적으로 코스닥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기술성 평가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의 첫 관문으로,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이크레디블과 한국평가데이터에서 A 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테라뷰는 ‘테라헤르츠’ 핵심 기술의 성장성, 경쟁우위, 연구개발 및 경영역량 등 다방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각 기관에서 A, A 등급을 획득했다.

2001년에 설립된 테라뷰는 테라헤르츠 전자기파 발생 및 응용 검사장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영국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두고 있다. 유럽 기업이

한국에서 상장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테라뷰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테라헤르츠는 물질 분석에 유용한 전자기파로, 높은 투과성과 분자와의 반응성이 뛰어나 미세한 타격을 감지하고 검사하는 데 적합하다. 이 기술은 특히 반도체 패키지 및 배터리 전극 코팅 검사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회사는 엔비디아, 인텔, 포드와 같은 글로벌 기업을 비롯한 국내 유수의 반도체와 이차전지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며 테라헤르츠와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돈 아논 테라뷰 대표는 “상장을 통해 한국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